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⑧

不是心中着急 就是打瞌睡日
불심중착급 취사타둔도일
結果成爲 頭年初參 二年老參 三年不參
결과성위 두년초참 이년로참 삼년불참
曷的(何)地方是什(何)呢
이적지방사십마니
只要與定一箇(箇)信心 長(長)水心 和(和)無心
只要與定一箇信心 長水心 和無心
지요구족일개신심 장영심 화무심
所謂(所謂)信心者 第一(第一)信我(我)此(此)心 本來(本來)是佛
所謂信心者 第一信我此心 本來是佛
소위신심자 제일신아차심 본래시불
與(與)十(十)方(方)三(三)世(世)諸(諸)佛(佛)衆(衆)生(生)無(無)異(異)
여시방삼세제불중생무이

三生若能不退 佛將決定可期
삼생약능불퇴 불계결정가기

주문도 이와같이 실천하고, 교학도 이
와같이 듣고 생각하며 수행하라.
(이상과 같이) 어떤 종류의 법문을
수행해도 다 계로써 근본을 삼는다.
과연 이와같이 지나갈 수 있다면
장차 이루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산 노사께서 설하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법을 수행해 삼생동안
만약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정코 부처
자리를 기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又(又)永(永)嘉(嘉)老(老)人(人)說(說) 若(若)將(將)妄(妄)語(語)託(託)衆(衆)生(生)
우영가로인설 약장어어공중생
永(永)無(無)退(退)少(少)劫(劫)
영추발설진사경
所謂(所謂)無(無)心(心)自(自)是(是)放(放)下(下)一(一)切(切)
소위무심자 취시방하일체
如(如)死(死)人(人)一(一)般(般) 終(終)日(日)隨(隨)衆(衆)起(起)倒(倒)
여사인일범 종일수중기도
不(不)與(與)一(一)分(分)別(別)執(執)著(著) 成(成)爲(爲)一(一)箇(箇)無(無)心(心)道(道)人(人)
부대기일점분별집착 성위일개무심도인

또 영가노사 말하기를 만약 망념된
말로 중생을 속이려 든다면
영원히 발설지옥에 떨어져 저 항하사
모래 수만큼의 고통을 보내리라 하였다.

(또) 마음으로 급하다는 집념이 없애
서 눈을 내리깔고 세월만 보내는 것이
나 첫째는 초참이고 2년째는 노참이고
3년째는 참구조차 않는 결과에 이를 뿐
이다.

쉬운 자리란 어떤 것인가.
다만 신심 하나 구족함을 요하나니
오래가는 마음이고 고된 무심이다.

이러바 신심이란 첫째 나의 마음이
분래부처라는 시방삼세 제불과 중생이
커불어 들어 아님을 믿는 것이다.

第二(第二)信(信)解(解)中(中)佛(佛)說(說)的(的)法(法)
제이신석가모니불설적법
法(法)法(法)都(都)可(可)以(以)了(了)生(生)死(死) 成(成)佛(佛)道(道)
법법다가이료생사 성불도

“초발심자가 신심·장영심·무심 갖추면
‘염불하는자 누구인가’ 보는 것과 같다”

所謂(所謂)長(長)水(水)心(心)者(者) 就(就)是(是)定(定)一(一)法(法) 終(終)生(生)行(行)之(之)
소위장영심자 취시정일법 종생행지
乃(乃)至(至)來(來)生(生)又(又)來(來)生(生) 終(終)如(如)此(此)行(行)持(持)
乃至來生又來生 終如此行持
내지래생우래생 도여차행지
參(參)禪(禪)定(定)總(總)是(是)如(如)此(此)參(參)去(去) 念(念)佛(佛)的(的)總(總)是(是)如(如)此(此)
참선정총은如此參去念佛의總은如此
참선적총시여차참거 념불적총시여차
念(念)去(去)
념거

이러바 무심이란 일체를 놓아버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종일토록 경계를
따라 움직여도 다시는 한점의 분별 집착
도 일어나지 않아 그대로 한 무심도인이
되는 것이다.

初(初)發(發)心(心)人(人) 具(具)足(足)了(了)這(這)三(三)心(心)
초발심인 구족토타삼심
若(若)是(是)參(參)禪(禪)看(看)話(話)頭(頭) 就(就)看(看)念(念)佛(佛)是(是)誰(誰)
若是參禪看話頭 就看念佛是誰
약시참선간화두 취간념불시수
你(你)自(自)己(己)念(念)念(念) 幾(幾)時(時)何(何)處(處)佛(佛)
你自己念念 幾時何處佛
이자기념념 기성이머타불
看(看)這(這)念(念)佛(佛)的(的)是(是)誰(誰) 這(這)一(一)念(念)是(是)從(從)何(何)處(處)起(起)的(的)
看這念佛的是誰 這一念是從何處起的
간지념불적시수 저일념시종하처기적
當(當)知(知)這(這)一(一)念(念) 不(不)是(是)從(從)我(我)中(中)起(起)的(的)
當知這一念 不是從我中起的
당지저일념 불시종아구중기적

초발심자가 이 세가지 마음(신심·장
영심·무심)을 고루 갖추면
참선에서 화두를 보는 것이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 보는 것과 같다.
네 스스로 목념타가 몇번 소리내어
아이타불을 부르고
저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 이 한생각
이 어느 자리에서 일어났는가 보라.
마땅히 알지니 이 한 생각은 나의 입
속에서 나온것이 아니다.

龍眼

물레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어느 법이든 법마다 생사를 요달
해 성불할 수 있는 도임을 믿는 것이다.
이러바 장영심이란 한 법을 골라 평
생을 수행하고 이어 내생에, 다시 그 내
생에 이르도록 그 수행법을 간직하는
것이다.

참선을 이와같이 실천해가며 열불도
이와같이 실천하고

持(持)咒(咒)的(的)總(總)是(是)如(如)此(此)持(持) 學(學)的(的)總(總)是(是)從(從)理(理)
지주적총시여차치법 학교적총시종은
思(思)修(修)行(行)法(法)
사수행법
任(任)修(修)何(何)種(種)法(法)門(門) 總(總)以(以)戒(戒)爲(爲)根(根)
임수하종법문 총이계위근본
果(果)能(能)如(如)是(是)做(做)去(去) 將(將)來(來)沒(沒)有(有)不(不)成(成)的(的)
과능여시주거 장래물유불성적
爲(爲)山(山)老(老)人(人)說(說) 若(若)有(有)人(人)能(能)行(行)此(此)法(法)
위산로인설 약유인 능행차법

이 더운 여름날 여기까지 무엇하러 오셨
습니까.
법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이 뻔한
니다. 부처님 만나러 왔다고 하는 이도 있
고 불법(佛法)을 배우러 왔다는 사람도 있
습니다. 아예 복을 빌러 왔다는 신도가 있
는가 하면 마음을 닦으러 왔다고 그런듯이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다른 대담
은 별로 없어요. 질문이 어려서야 대답도
고만고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느
대담이든 다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싶으니
쉽잖아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만나건 법을 배우건 복을 빌건
굳이 이 더운날 산중의 절에 와야만 하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
분의 생활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복이
있고 불법과 마음이 있는데 뭣하러 여기까
지 오셨느냐 그말입니다. 그렇다고 절에 오
지말라는 것도 아니고 오신것이 잘못됐다
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주 오셔야 합니다. 오시되 오실때마다 이웃
사람 한 사람씩 데리고 함께오면 더욱 좋
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이유가 아니고 와서 무
엇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법당이나 구경하
고 부처님 앞에 꾸벅꾸벅 절이나 하다가

“계율 지키는 것은

지 상 법 석

벽암스님
(도봉사 주진)



약 력
· 1923년 서울 생
· 38년 서대문 백
련사서 차학연스
님 은사로 득도.
· 백련사 강원 사
집과정 미치고
요향산 보현사
강원서 대교과
마침.
· 69년 도봉사 창
건.
· 태고종 법규위
원장, 고시원장
역임.

“생활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불법과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가느냐. 뭔가 가슴 가득 기쁨을 담고 가
느냐 문제라는 말입니다. 짧게 들어온 것도
법당을 구경 한 것도 부처님앞에 절을 한
것도 나름대로 다 공덕이 없는 것은 아니
지만 스스로 불자를 자처하며 법회에 나온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기운 법회에 나오셨으니 가슴이 터져나
가는 기쁨을 맛 보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기쁨이 다음 법회때까지 살아가
는 영양분이 될 것이니까요. 부처님의 가르
침에서 우리의 수행과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 불법의 세계가 어떤 것
이라고 단정짓거나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란 쉬운일도 아니고 이 노승의 60년 공부
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
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해야 하고 거기서 찾아진다는 것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화려하고
복잡하고 즐겁고 불쾌한 모습등등이 불법
펼쳐지는 거대한 연극이고 쇼가 아니겠습
니까, 그 속에 내가 무엇으로 존재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
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불법 구하는
일입니다. 삶속에서 우리가 찾을 불법의 근

원은 자비입니다. 자비로 살면 불법이 저절
로 드러나는 겁니다. 남에게 자비롭고 내
게 자비로운 사람은 이미 더이상 닦을 것
이 없는데도 과인이 아닐 겁니다. 더불어
사는 인간세상에서 보살과 부처의 행을 한
결같이 실행하는데 누가 그를 중생이라 하
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기에
조금씩 그렇게 사는 방향으로 나가자는것
아닙니까. 자비는 무엇이나 얼마전에 겪은
얘기 한 토막 들어 보십시오.
이 법당 아래 내가 기거하는 방의 당호
가 뭔지 아십니까. ‘심심해서(尋心靜處)’입
니다. 심심해서 그냥 못자고 지은 이름은
아니고 ‘마음을 찾는 골짜기의 높은 집’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심심하게 앉아 있는데 바깥이 시
끄럽던 허더군요. 심심하니까 밖이 시끄
러우니 나가볼 수 밖에요. 저쪽 한편에 남
자 네명이 앉아 밥이다 찌게다 한것 끓이
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더군요. 분명 절
안인데 그래서 안 될 곳을 알만한 나
이들인데 말입니다. 다가가서 들으니 계중
에는 모대학의 교수도 있더군요. 마침 나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는 절 안이니 이렇게 음
식 끊어 먹으면 안됩니다. 너무 소란을 피
워서도 안되고요.”
“노인은 누구시요”
“난 이 절에서 밥 얻어 먹는 사람인데
선생님들 같이 소란피우고 음식해 먹는 사

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쫓겨 납니다.그러
니 다른 곳으로...”
“여기는 절 아닙니까. 절에서 배고픈 중
생이 밥해 먹는다는데 왜 쫓으러 합니까.
절이 자비를 베풀어야지”
대학교수 일행이 자비란 말을 서슴없이
하길래 나는 그들이 앉은 가운데 도사리고
앉았지요.
“자비라고 했어요. <법화경> 25품이 ‘관
세음보살보문품’인데 거기에 ‘응이집금강
신(應以軟金剛神)으로 득도자(得道者)는
즉현집금강신(卽現軟金剛神)하여 이위설법
(而爲說法)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 뜻은
금강역사의 무서운 철위로 다스려 교화 시
킬 사람은 마땅히 금강역사의 철위로 법을

책방 여시아문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알찬 불서 관련 정보를 실은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